

제8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제8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이 결정됐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92편의 신행수기가 접수된 가운데 차정연씨의 ‘움막 속에 피어난 불심’을 비롯해 모두 7편이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신행과 진솔한 체험들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이번 신행수기에 응모해 주신 많은 불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상(유마상)
‘움막 속에 피어난 불심’ 차정연 (부산시 사상구 영곡동)
현대불교신문사장상 (우수상)
‘부처님 믿는 마음은 곧 희망입니다’ 조미자 (충남 천안시 쌍용2동)
특별상(종단협의회장상)
‘별국도 이룩하는 그날까지’ 이원규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특별상(천대종 총무원장상)
‘부처님 원력으로 다시 살아나다’ 이왕근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특별상(관음종 총무원장상)
‘불립문자 직지인심’ 김동난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특별상(총화종 총무원장상)
‘무명의 삶에서 불법을 만나기까지’ 정일환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특별상(진흥연 이사장상)
‘부처님, 견고 뛰어나고 싶어요’ 엄범순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고뇌하던 저녁, 한국어로 산책을 한다. 나뭇가지를 부지런히 오가며 재잘대는 참새들이 정겹게 다가온다. 낙동강 하류 건너 멀리 김해 무학사에 걸린 노을은 안개전 서쪽 하늘가에 무지개 빛 춤을 이루고 있다.

저녁노을을 하얗없이 바라보기도 하고, 낙동강 하류의 은빛 출렁거림과, 강변도로를 따라 오가는 무수한 차량들을 헤아린 지도 벌써 8년의 세월이 넘었다.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불혹의 문턱에서였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집을 찾기도 했는데 이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내 발 아픈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라는 말씀을 큰 법문인 줄도 모른채 늘 그런 말씀을 접하면서 성장했다.

내 전생의 업인 때문인지 나는 처음부터 불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었으며, 악업의 굴레와 인연에 얽매어서 때론 고된한 삶에 허덕어 신음하고 있었지만 항상 착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 속에 살았다. ‘토끼 한 마리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낚장 먹고 있을 때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사과에 얼굴을 맞고 놀란 토끼가 마구 달리니 옆에 있던 노루도, 사자도, 다람쥐도, 숲속에 있던 모든 짐승들이 덩달아 달리고, 끝도 모를 곳으로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도록 달리며, 앞뒤 번갈고 부딪고 먼지 속으로 다시 그 속으로 부딪치며 그냥 달리듯’ 나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군지 어디를 향해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집착과 갈등 그리고 탐·진·치 삼독의 짙긴 끈을 붙들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밤과 낮을 오가며 버람 끝으로 달리고 있었다.

불혹의 문턱에서 심한 좌절과 실패, 육신의 질병악화, 정신적 갈등과 회의 속에 자신을 가두고 공포 묶어 집착한 세속과의 인연의 늪에서 방황을 거듭하며 헤어나갈 줄 몰랐다. 악화된 육신의 질병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할 만큼 쉽게 낫길 수 있는 기운마저도 날아있지 않을 만큼 절박한 생사의 기로에서 꿈도 생시도 아닌 환영에 시달리며, 어머니의 부름과 세속의 인연 속에서 오락가락 헤매고 있었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어머니이 계신 집 가까이로 다가가지 않으면 바위 산이 가로놓여 있고 내키 보다 더 큰 가시 덩굴과 영인 숲이 있을 거리고 있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그때 덩치 큰 남자가 나타나자고 생 각하면 신장님 차를 태워 어귀나 데려다 주며, 여기서 연장을 찾아 가라고 했다. 내가 그 연장을 찾는 동안 속세의 내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 나는 그 수문장 같은 신장님

■ 신행수기 대상 수상작

‘움막 속에 피어난 불심’

차 정 연



그림 · 김홍인

의 보호를 받으며 실오라기보다 약하게 꺼져가는 생명 한 가닥을 부처님 진리의 법에 매달린 채 무릎을 꿇었다. 어딘가에서 나타난 동풍처럼 생긴 보살님이 절의 부엌 뒷문에서 오희통을 들

어려 겨울 준비를 했다. 폭풍우를 만나 가지지기를 하고 연일 불어 주는 바람에 일새를 훌훌 털어내기 시작했다. 아픈 상처를 거룩한 부처님 전에 다 드러내 놓고 긴 휴식에 들었다.

이가 되어 제했다.

나는 죽음을 초월하는 시련과 불도 자유롭게 넘길 수 없는 육신의 병고로 행하니 들어간 눈에 맺기하나없이 파리해진 얼굴, 양갈진 성격만 남은 상태에

철야정진 후 참회 눈물 흘려

“열심히 살았다…” 모두 허상

선재동자가 53 선지식을 절방하고 보현보살을 만나면서 불도를 이루듯, 나 또한 세파에 시달리며 어머니이 계신 약수암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내 어머니는 가난 속에서도 거북하게 피어나 소리 없이 꽃피운 한 송이 연꽃같은 분이였다. 자신이 입은 옷마저도 가엾은 중생에게 다 벗어주고 당신의 일품을 땅 속에 감추신 지장보살 같았다. 비닐 움막 속에서 외로운 어르신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 어려운 이웃들을 헌신과 사랑으로 보살피며 고통을 함께 하고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위안처가 되어 주시며 30년 가까이 이곳 산하에 묻혀 아무든 곳에 불발하는 집착

불이루시지 않으시고,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끝나는 열반에 들지 않으시며 오로지 삼악도를 사시는 곳으로 삼아 죄업이 무거운 오락야세의 중생교화와, 죄많은 중생 구제하시는 지장보살님의 대연에 의지하여, 나 자신의 온갖 악업과 업장소멸을 위해 열심히 지장보살님을 찾았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 내 생각들이 모두 허상이었다. 깨어도 깨어도 다시 소생하는 번뇌망상의 뿌리를 파헤치고자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108배와 3천배를 반복하며 지장보살을 찾았고 도량 청소를 하면서도 지장보살을 찾았다. 거의 폐허가 다된 비닐

움막은 악귀·잡귀와 대화를 나누는 곳당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마군과 악귀, 귀신 속에서 지장보살님을 만날 없이 불렀다. 마군 또한 나를 강하게 하는 스승으로 삼으며 이겨 나갔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부터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픈 육신의 병은 점점 사라지고, 안개 낀 것 같은 머릿속은 맑아지기 시작했다. 8월 22일에는 거북 등 위에 무엇인가 싼고 들어오며 연화봉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모습을 맞이받았다. 또 어느 날은 아기스님과 큰스님네들이

내가 기도하는 곳에 모여들었고 무리 지은 스님네들이 내 기도를 지켜보아 계셨다. 그런 선몽 후 하루의 일과가 정확하게 배치지로 전달되었다.

많은 불들이 향로 가득 피워 놓은 향내와 허약 체질에서 오는 겨울 감기, 알레르기 현식까지 겹쳐서 목이 붙어 버린 듯, 제대로 숨을 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겪으며, 움막 속에서 맞이한 겨울. 그해 겨울은 왜 그리도 춥더니. 나는 시멘트 바닥에서 겨울 내 새로운 병고와 싸우며 목숨건 나와의 투쟁을 계속했다. 그러면서도 <천수경>, <반야심경>, <화엄경>을 독송하기 시작했고 날마다 ‘일상발원문’을 외었다.

무한한 지혜와 지비의 빛으로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소서 제가 지난날 무명의 구름에 가리워,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잘못을 참회합니다. 오랜세월 동안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은 인과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갈길 몰라 헤매어오니이다”. 나는 비닐 천막을 걷어내고 낡은 판자로 바람 막을 판자집을 지었다. 맑은 물이 흘러넘치는 이곳에는 불혹을 막 맞이한 젊은 어머니가 흠뻑 단신으로 바위를 깨어내고, 흠을 일구어 토굴을 만드며, 손과 발이 닳아 지분이 없어지도록 기도를 하며 지켜온 흔적이 어려웠다.

가난한 이웃과 병든 자, 외로운 어르신들의 빛이 되어 무상법문으로 가르침을 주신 곳, ‘착하게 살아라. 남의 총허물을 지적하지 말라라. 다투지도 말며 지는 길을 택하라. 성내지 말며 허욕 탐심을 갖지 말고, 원수와 친한 이의 구분을 말라라. 곳곳에 당신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

나는 이곳 판자집에서 바람을 피하며 지장보살을 찾아 나선 백일간의 지장기도회향을 맞이했다. 상대에게 상처보다는 즐거움을 줄 수 있게, 신분에 맞지 않는 욕심보다는 평등한 마음으로 용기와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그득해질 때 나는 일타 스님의 기도집을 읽었다. 기도하시던 보살님에게 일어난 방광은 일시적 마징에 불과해 잠재우셨다는 대목을 읽기했다. 나는 타인과의 접촉을 멀리하고 외부와의

청룡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하얀 눈이 무릎까지 내린 화이산을 올라 천수현안판세음보살님을 배움고 약수암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야 할 자기의 몫이다.

나는 방황을 멈추고 약수암에서 3년간 나를 잠재우기로 하고 1996년 마지막 달에 천일 간의 부처님 진리의 법을 찾아 다시 길을 나섰다. 해암 종정 큰스님의 신년법어 ‘작게 시련을 겪으면 작게 성공할 것이고, 크게 시련을 겪으면 시련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법어를 새겨며, 매일 반복해서 108배와 1000배한 달에 한번 3천배 참회정진을 하며 ‘관세음보살’을 염원했다.

밤과 낮 사계절의 변화하는 모습도 잊은 채 관세음보살님만 찾았다. 하루에 한편씩 독송하기로 한 <천지팔방신주장>을 하루에 7번 이상 독송도 했다. 끊어도 끊어도 떨어지지 않는 짙긴 업연의 끈을 잘라내기 위해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밤에도 염주주머니에 수를 놓아 보시했다. 회향 때까지 염주주머니 200개 염주250개 단주 500개 이상을 보시했다.

중생이 괴로움에 허덕일 때 구원의 주체자인 관세음에서 구원의 대상인 중생을 끌어삼피시므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불에 타지도 않고 뭉뚱이로 잘리거나 다치지 않으며, 귀신에 시달리지 않고, 쇠고랑을 차지도 않으며 도적의 두라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신다.’

항상 관세음을 생각하며 공경하면 육신 많은 사람은 육신을 여의게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롭게, 성냄이 많은 사람은 성냄을 여의게 한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고자 관세음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복덕이 많고 영리한 아들을 낳을 것이며, 딸을 낳고자 하면 모습에 단정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딸을 낳게 한다’

무릎에 닿은 옷이 딱딱하지 기워지고 많은 무릎에서 터진 피가 고름이 되어 딱지가 않고 또 닳아지도록 108배, 3천배를 시멘트 바닥이 닳아 움푹 패일 때까지 내몸을 아래로 내리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미움과 속 삶은 물론 마시면서 계속된 기도 정진으로 목에서 피가 흘렀고 아픔의 눈물로 얼룩진 짙긴 업의 덩이가 서서히 녹아 내리고 있었다. 만나라는 사람이 줄을 이어 판자집 작은 방이 그득해질 때 나는 일타 스님의 기도집을 읽었다. 기도하시던 보살님에게 일어난 방광은 일시적 마징에 불과해 잠재우셨다는 대목을 읽기했다. 나는 타인과의 접촉을 멀리하고 외부와의

소리들 차단한 채 부처님 전에 더욱더 겸허한 마음으로 참회에 내 한 목숨을 걸었다.

‘부처님 제가 더욱 겸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계속해서 관세음보살을 찾으며 내 생각의 여울 속에 갇혀 있는 집착과 번뇌망상을 떨쳐내었다.

회가 낫을 때 자기 마음을 잘 관촬해 보면 온갖 다름과 회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상대자가 자신이 바라는 만큼 해주지 않거나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때 회가 나 기도하는데 그것은 또한 자기의 욕심에서 나온 것



그림 · 김홍인

4년간 목숨 건 토굴 정진

봉사·공부 계속, 이웃위한 삶 서원

‘모든 것을 밝게 알고 일체법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욕망을 멀리 떠난 것. 그 속에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 진실로 혼자 사는 삶이라 일컫느니라’

1122일간의 율령정진 중 한번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았으며, 신책하는 일 외에는 거의 독서에 몰두했다. 보살님들이 보던 신행집, 불담 사이에 타다 남은 오래 묶은 책들을 찾아 읽고 의식 부분은 아예 통째로 읽기했다. 4년 간의 기도를 1122일만에 회향했다. 그동안 도량 모습도 변해 있었다. 쓰레기가 쌓였던 곳은 깨끗이 청소해 주차장을 만들고, 승학산 절기에서 맑고 청정한 약수가 도랑에 흘러내렸다. 돌담을 쌓아 만든 곳에는 산신을 모셨다. 1996년 2월 24일 관음제일날 화상이라는 범법을 받았으며, 그해 4월 17일 통도사 총무스님을 모시고 석가모니부처님을 점진했다. 도량의 모습이 부처님의 정진도량으로 자리 잡아가셨으며 나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었다.

회가 낫을 때 자기 마음을 잘 관촬해 보면 온갖 다름과 회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상대자가 자신이 바라는 만큼 해주지 않거나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때 회가 나 기도하는데 그것은 또한 자기의 욕심에서 나온 것

르던 초발심자와 함께 시작한 4개월간의 불교교리 공부는 벌써 6기를 준비중이다. 그 동안 틀림이 악한 고려수지침으로 양로원, 복지관,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 중이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생각이다. 올해 조그만 땅을 마련했다. 외로운 어르신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보려 한다. 그리고 좀 더 나은 보살핌을 위해 2003년 동대대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한 상태다. 나는 거룩한 부처님 도량에서 많은 공부를 하기로 항상 발원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니 있는 것이 곧 없음이요, 없음이 곧 있는 것이니. 진공에 들어가서 소모되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없는 것이고 있는 채로 또한 없는 것이다.’고 했다.

현실 모두가 한순간의 꿈이기 때문에 흐나 자신이 꿈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없는 것이다. 도량 내에 흐르는 맑고 청아한 물, 각양각색의 피고지는 꽃들, 울창한 소나무, 오리나무, 대나무, 숲을 오가며 노니는 새들의 지저귀음 모두 이런 정겨운 친구가 되었다.

‘하늘이 나에게 복을 바라게 준다면 나는 나의 덕을 후하게 하여 이를 맞이할 것이며, 하늘이 나의 몸을 수고롭게 한다면, 나는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이를 보충할 것이며, 하늘이 나의 처지를 곤궁하게 한다면, 나는 나의 도를 달성하여 이를 떠넘기 할 것이니 하늘인들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제 중생과 함께 수백, 수천 생을 거듭하면서 육바라미수행으로 ‘상구보리하화중생’하는 대승보살의 자라아티함을 맺삼으려 한다.

밝게 꿰뚫어 헤아릴 수 있는 존재의 참다운 깨달음, 진실한 지혜를 간직하기 위해 수행 정진하려 한다. 수행은 혹독한 시련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는 고행과 다르다. 진리를 깨치기 위해 탐욕에 찌든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좋은 습성으로 바꾸어 마침내 깨달은 과정이며 반복된 일상이라 했다. 출연자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떠난 어머니 말씀만이 저무는 서쪽 하늘기에 맴돌고 있다. ‘착한 끝은 있는 기라. 착하게 살아라’ 과거일곱 분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은 ‘모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온갖 착한 일들을 받들어 그 마음을 깨끗이 해라’ 하셨다.

오늘 밤에는 ‘법정스님’을 뵈어야겠다. 내 사유의 틀에 맞고 향기 가득한 생명의 씨앗을 심기 위해. 황금빛 노을이 사라진 주위, 까만 침묵이 쌓여간다. 내입은 반드시 밝은 태양이 솟을 것이므로 나는 거룩하고 자비로운 부처님 전에 진정한 무릎 꿇음을 위해 발걸음을 옮겨 본다.

당선소감	
대상 차정연씨	살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위안을 삼기 위해 적어놓았던 글인데 막상 대상이란 큰 상을 받게 되니 부끄럽습니다. 보잘 것 없이 붓기는 대로 쓴 글이지만 현재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합니다.
생활 속 불법실현에 전력할 터	저는 정말 죽을 결심으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다다렸을 때 부처님의 힘이 아니었다더라면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기회가 불법을 더욱더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실천하라는 가르침으로 알고 현재 하고 있는 집 인근의 독거노인 말벗해주기, 목욕, 수지침 봉사 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항상 기도정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어려울 때마다 달려가 의지
심사평	총 92편중 예선을 통과한 11편의 작품들이 본선에 올랐다. 올해는 참가 연령대가 지난해보다 낮아졌고, 인터넷 접수자 20여편 이상도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현실의 어려움을 신심으로 극복하
총 92편 응모…기복적 내용 여전히 아쉬워	망으로 봉사활동에 전념한 모습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이번에 비록 수상작으로 뽑히지는 못했지만 교도소 등 소외된 곳에서 자신의 업연의 과보를 참회하는 내용의 수기도 많았다. 지난해보다 응연희의 전반적인 수준이 글의 내용과 문장구문에서 다소 떨어지는 감이 들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견
심사위원들	◇구립 23일 심사위원들이 신행수기 본선에 오른 11편을 심사하고 있다.
심사위원들	◇1982년 부산 사상구 출생, 74년 성지고 졸업, 2002년 조계종 포교사 고시해 합격해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2003년도 부산 동대대 사회복지학과 수시모집에 합격한 상태다.
심사위원들	◇1962년 부산 사상구 출생, 74년 성지고 졸업, 2002년 조계종 포교사 고시해 합격해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2003년도 부산 동대대 사회복지학과 수시모집에 합격한 상태다.